

“은퇴 이후 적정 금융자산은 5억~10억”

중고령층 36.3% 답해... “10억 이상” 25%

절반이 “생활자금 월 200만~300만원”

■ KDB대우증권 연구소 조사 ■ 은퇴 후 적정 금융자산

은퇴 이후 적정 금융자산으로 5억~10억원이 필요하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KDB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가 발간한 ‘2014 시니어 노후준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36.3%가 은퇴 이후 필요한 적정 금융자산 규모가 5억~10억원이라고 답했다. ‘10억원 이상’은 25.4%, ‘20억원 이상’은 9.3%에 달했다.

생활자금으로는 월 200만~3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3.9%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100만~200만원(26.9%), 300만~500만원(21.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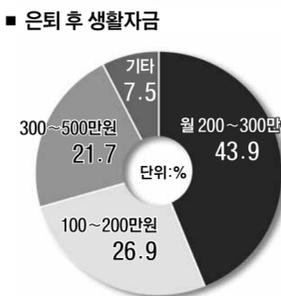
수도권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은퇴 이후 월 생활자금이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이 많을수록, 금융자산 규모가 클수록 생활자금을 더 많이 필요로 했다.

응답자 가운데 25.6%가 노후생활을 위해 정기적으로 저축 또는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기적으로 저축·투자한다는 응답 비중도 47.9%에 달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은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월 저축·투자 규모는 정기적일 경우 매월 100만~200만원이 37.9%, 200만~300만원이 21.8%를 차지했다. 여성보다 남성의 저축·투자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 후 생계비에 충당하기 위해 보유하는 상품으로는 국민연금(21.0%),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19.2%), 예적금(16.2%), 보험(15.2%) 등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운데 13%가 개인 연금에 가입하고 있고, 월 가입규모는 50만원 미만(38.0%)이 가장 많았다.

아울러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이나 부업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56.6%로 절반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66.4%, 여성은 42.7%로 집계됐다. 수도권(53.3%)보다 지방거주자(59.6%)의 근로 비율이 높았다. 희망 은퇴연령은 70~74세(33.3%), 65~69세(25.5%)로 정년을 70세 전후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로 정년을 70세 전후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월급 수준은 100만~200만원(34.5%), 200만~300만원(29.9%)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에 관계없이 일을 하겠다”는 응답도 15.2%에 달했다.

부부가 함께하고 싶은 취미는 여행(58%)과 운동(17%)이 많았다. 은퇴 후 손자를 돌봐줄 의향은 있다(51%)가 없다(45%)보다 조금 많았다. 은퇴 이후 같이 살고 싶은 동거인으로는 배우자(87%)가 혼자(6%)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만, 혼자 살기를 원하는 응답비율은 여성(11%)이 남성(3%)보다 높았고, 배우자를 택한 사례는 남성(93%)이 여성(77%)보다 훨씬 많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은퇴 이후 노령자들은 생활자금으로 월 200만~3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서 5개 구청을 대표해 출전한 어르신 선수들이 공구경기 경기를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주간 증시 포커스

美 FOMC에 쏠린 눈 스코틀랜드 투표도 변수 中 소비재 관련주 관심율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금통위에서 금리동결을 결정했지만 일부위원들이 금리인하의견을 보이면서 10월 금통위에서는 추가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정책 모멘텀을 통한 선진증시와 유사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번 주 시장은 국내변수가 크게 부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16~17일 예정되어 있는 9월 FOMC 회의와 찬성가능성은 낮지만 찬성될 경우 영국과 유럽의 경제적·정치적 혼란이 예상되므로 18일로 예정된 스코틀랜드 분리독립투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월 FOMC 회의는 이미 엘렌의장이 잭슨홀 연설을 통해 10월 양적완화프로그램 종료를 공언한 바 있기 때문에 10월 FOMC 회의는 양적완화종료 이후 통화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다. 이번 9월 FOMC회의에서는 최근 개선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지표에 따라 10월 FOMC회의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이 집중할 것이다.

최근 중국 증시와 관련한 최대의 이슈는 후강통 실시와 후커우제도 개편이다. 10월부터 실시되는 후강통제도는 중국 본토 증시인 상해증권거래소와 홍콩거래소 양 지역 투자자에 대하여 현지의 증권사를 통해 규정된 범위 내의 상대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상하이증권거래소의 본토주식 A주 568개종목, 홍콩거래소 H주 266개 종목이 매매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준비 작업 및 두차례 예비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개방된 증시구조에서는 본국의 주식과 해외의 상장된 주식간에 실질적인 가격 괴리가 크지 않다. 만일 가격괴리가 크게 발생하게 되면, 차익거래가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중국 본토증시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이 매우 컸기 때문에, 홍콩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주가에 비교하면 평균 8%정도의 디스카운트 되었기 때문에 중국본토 주식의 점진적인 상대적 강세가 예상된다.

후커우제도는 신분과 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한 제도로 농촌과 도시주민을 구분하고 농촌 주민의 도시이주를 제한하는 제도로 이용되었다. 현재 2억명으로 추산되는 도시 거주 농민공의 경우 취업, 거주, 의료보험 등의 분야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의 후커우 제도 개편은 도농 주민간의 이원화된 후구제 폐지를 통해 중국 소득 불균형을 바로잡고 사회공공 서비스 차별을 없애 균형발전을 추진하며 도시화 정책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도시화되었던 한국의 사례와 비교해 본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소비재 관련주에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삼성전자 시가총액 2년만에 200조원 선 무너져

2분기 영업실적 부진... 주가 3개월간 18% 하락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이 계속되면서 시가총액 200조원 선이 2년 만에 무너졌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시총(우선주 포함)은 지난 5일 현재 198조9179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2일 삼성전자 시총은 198조3435억원으로 지난 2012년 9월 7일 이후 약 2년 만에 처

음으로 200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이후 3일 197조2873억원, 4일 200조5861억원으로 200조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부진을 보이면서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총에서 삼성전자의 비중도 지난 5일 현재 16.22%로 2012년 2월 17일(16.36%) 이후 2년 6개월여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3일 삼성전자 주가는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연중 최고치인 147만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후 2분기 영업이익이 7조19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6%나 급감하는 등 실적 부진이 뚜렷해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는 6월 3일부터 지금까지 석 달여 동안 18% 이상 떨어졌고 시총은 43조8705억원 감소했다.

3분기에도 중국 저가 스마트폰의 맹추격에

필의 아이폰6 출시로 ‘샌드위치’ 신세가 돼 실적 하락이 계속되리라는 비관적 전망이 늘면서 주가도 맥을 못 추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증권사 27곳이 제시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 평균(컨센서스)은 전년 동기보다 31.2%, 전분기보다 2.8% 줄어든 6조9천 876억원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현대증권(5조9180억원), 신한금융투자(5조9720억원), KDB대우증권(5조9730억원), 우리투자증권(5조9970억원) 등 영업이익이 5조 원대로 감소하리라는 전망까지 잇따르면서 당분간은 주가 회복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연합뉴스

대지공인중개사 사무소, 박정원

H,010-8572-8985 T,262-8985

- **진주빌라 89㎡**
북구 오치동 1층, 구조좋은 매매가 5950만원
- **임야 36026㎡**
담양군 창평면 외동리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차선 포장도로 접 전면 85m 접 매매가 2억1800만원
- **다가구 주택 부지**
북구 오치동(도로 접) 대지 928㎡(280평) 매매가 4억8000만원

★급매물 접수합니다

오피스텔 "매매"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53평 - 13층**
코너, 전망좋은 전체 울수리, 사무실 적합 매매 - 1억5500만원
- **29평 - 12층**
양동 하천 방향 전체울수리, 주거용 매매 - 7200만원 주인직매 010,3180,8900

아파트형 콘도/ 별장/ 펜션 분양

문의, 010-6832-8900

★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번지



- ★ **아파트 개념**
전기, 수도, 가스 개별 100m 온천수, 편백나무 시공 TV등 빌트인 시설 포함
- ★ **산속의 궁전**
화개장터, 생계사, 섬진강 근접거리
- ★ 2층, 28평, 1세대
- ★ **총 55세대 (18/28/56평)**
- ★ **28평 - 9000만원(용자 2300만원 포함)**

대명리조트와 교환 가능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 단독, 공동투자 하실 분
- ▶ 낙찰물건에 투자 하실 분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